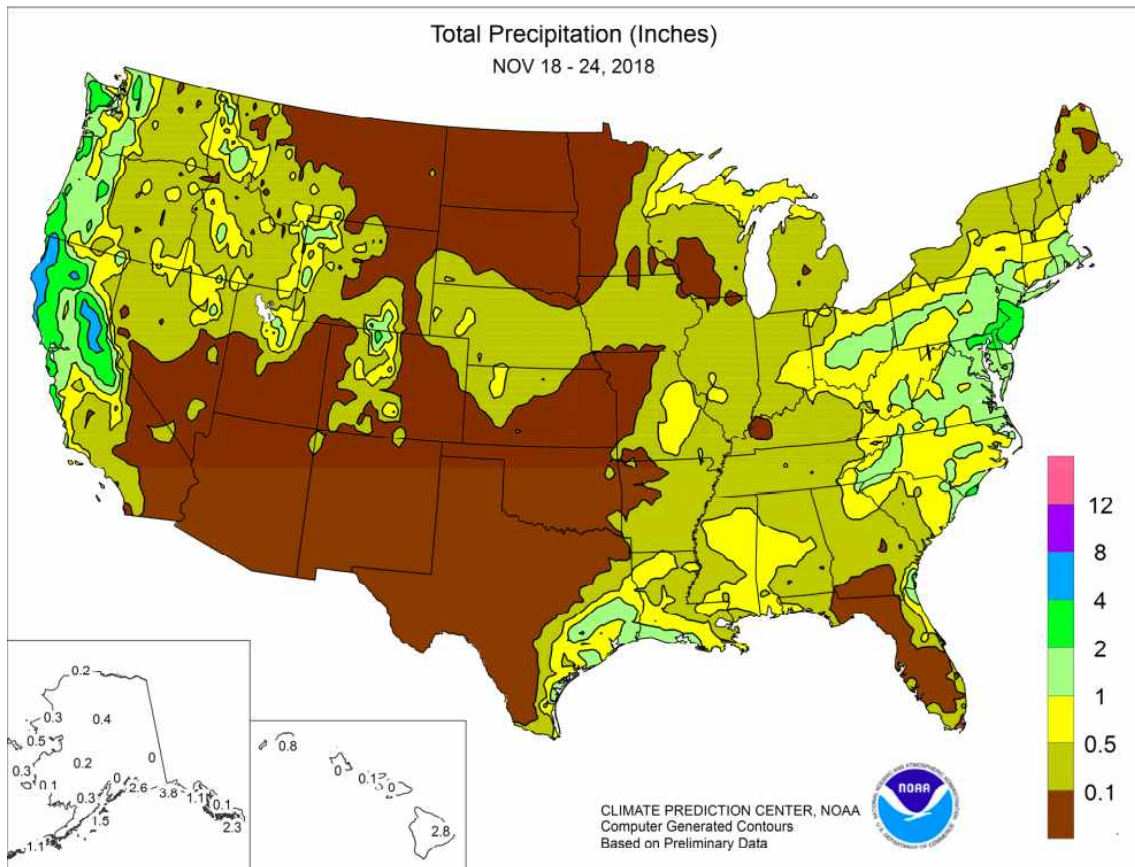


11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5, No. 48)

□ 미국 기후 현황(11/18~11/24)

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비롯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 및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 일대에서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다. 내륙 산간 지역과 로키산맥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고산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. 중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 아래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되었고, 주 후반에 비가 내렸다. 몬태나에서부터 캔사스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°F 이상 낮았다. 미시시피강 일대와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겨울밀 파종작업과 여름 작물의 수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.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 일대에서는 2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추수감사절에는 오대호 및 북동부 지역 등에서 추위가 찾아왔으며, 곳에 따라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15°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(11/19~11/25)

대서양 연안 지역 및 걸프만 서부, 태평양 연안 북서부, 로키산맥 일대,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. 반면, 플로리다, 남서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과 미시시피강 주변 지역, 뉴 잉글랜드, 텍사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°F 이상 낮았다. 반면, 캘리포니아, 플로리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°F 정도 높았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11/18~11/24)

■ 유럽: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 넓게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중부 유럽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 하지만, 독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에 의한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, 지역에 따라서는 이듬해 봄에 파종작업을 다시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. 한편,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주로 남부 유럽 일대에 머물렀고, 이 지역에서는 10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5°C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.

■ 구소련(서부):

이 지역의 기후 현황은 2019년 3월 이후부터 다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지만, 낮 기온은 5°C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. 그밖의 겨울 작물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.

■ 호주: 호주 동부 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. 퀸즐랜드, 남호주, 빅토리아, 뉴 사우스 웨일즈 등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지역과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25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 서호주의 밀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10~30mm 내외의 비가 내려 밀과 카놀라, 보리 등의 수확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. 서호주와 남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2°C 정도 낮았고, 그밖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.

■ 아르헨티나: La Pampa, Cordoba 남부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, Buenos Aires, Santa Fe, Entre Rio 등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, 낮 최고기온은 30°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. Parana 강 주변 지역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 북부의 Salta 등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비가 그친 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0°C 후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.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2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93%를 기록했고, 옥수수의 파종률은 58%였다. 대두의 파종률은 50%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%p 낮은 수치이다.



■ 브라질: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. Mato Grosso와 Tocantins 등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Rio Grande do Sul, Minas Gerais 남부 지역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°C 후반에서 30°C 초반까지 오르고 있다.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, 11월 19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5%, 99%를 기록했고, 밀의 수확률은 98%를 기록했다. 한편,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5~2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두와 면화의 파종작업이 진행되었다.